

K리그1 경기 축소 큰틀 합의...개막시점은 불투명

12개 구단 사장·단장 대표자회의 올 시즌 33·27라운드 등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프로축구 K리그 구단들이 올 시즌 입장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K리그1(1부 리그) 12개 구단 사장·단장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0시즌이 개막하면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33경기를 치르고, 상·하위 6개 팀으로 나눠 5경기씩을 더 치르는 현행 38라운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즌이 치러질 전망이다.

스플릿 시리즈 없이 33라운드만 치르는 방식은 물론 32라운드(정규리그 22라운드+스플릿 10라운드), 27라운드(정규리그 22라운드+스플릿 5라운드) 등 여러 방식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으나 대표자들은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개막 시점이 미뤄지고 있어 경기 수가 축소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리그 개막 시 홈·어웨이 경기 수에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각 구단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불리한 부분을 감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개막 뒤에도 선수 감염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에비알'을 뒤 비교적 느슨하게 입장을 짜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프로축구 K리그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리그 방식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개막 시점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면 4월 초 리그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막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개혁 시점과 방식, 정부의 대응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막 시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질병관리본부 일부

장을 맡았던 전병을 차의과대학 교수가 대표자들에게 코로나19의 성격과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특히 개막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경기 뒤 선수들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힘든 검도 도장 힘내세요

광주시검도회, 19개 공인도장에 1900만원 특별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유지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광주시내 검도 도장이 텅서리를 맞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을 중단하는 도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련생들의 발걸이 끊기면서 운영이나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검도회(회장 최용훈)가 검도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검도회는 30일 광주시검도회관에서 최용훈 검도회장을 비롯해 검도장 관장, 임원 등 협회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인도장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를 제외하고 소속 경기단체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산하 도장을 돕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별 지원금은 총 1900만원으로 광주지역 19개 공인도장에 각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재원

은 각종 대회 격려금, 행사 축소, 임원 출연금 등 협회 사업비를 간축편성하고 절약해 마련했다.

임원 등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도장을 살리기 위해 전 검도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도회는 일선 도장들이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원금에 담았다.

협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도장 관계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용훈 광주시검도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도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데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영기 기자 penfoot@



최용훈 광주시검도회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도장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여자농구 FA 최대어 박혜진 잡아라

내일부터 영입 경쟁 시작...김정은·박하나 등 16명 명단 발표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박혜진(30·178cm), 김정은(33·180cm)과 용인 삼성생명 박하나(30·176cm) 등 자유계약선수(FA)들에 대한 영입 경쟁이 4월 1일 시작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올해 보상 FA 대상자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FA 대상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가운데 박혜진이 단연 '최대어'로 꼽힌다.

박혜진은 2019~2020시즌 우리은행에서 27경기에 나와 평균 14.7점에 5.4어시스트, 5.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강력한 최우수선수(MVP)로 지목된다.

2013~2014, 2014~2015, 2016~2017, 2017-

2018시즌에 이어 다섯 번째 정규리그 MVP를 노리는 박혜진은 2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도 베스트 5에 뽑히며 우리나라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끈 선수다.

김정은과 박하나, 안혜지(BNK), 심성영(KB) 등도 다른 팀들의 영입 대상 리스트에 오를 만한 선수로 꼽힌다.

FA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원소속팀은 보상 규정에 따라 선수나 현금을 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공헌도 1위 박혜진이 다른 팀으로 갈 경우 박혜진을 영입한 팀은 보호 선수 4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계약 금액의 300%를 원소속 구단인

우리은행에 내줘야 한다.

보상 FA는 1차와 2차 대상자로 나뉜다.

1차 대상자는 최초 선수 등록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로 이들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원소속 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다른 구단과 만날 수 있다.

반면 1차 FA 자격을 한 차례 행사한 선수들은 2차 FA가 되는데 이들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박혜진, 박하나, 김정은, 심성영 등은 모두 2차 FA고 안혜지와 김민정(KB), 강재리(하나은행) 등은 1차 FA다.

4월 25일까지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은 같은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소속팀과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이때도 새 팀을 찾지 못한 선수들은 5월 한 달간 다른 팀들과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박혜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재연기 상반기 국제대회 모두 취소 다음주 새로운 개최 일정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재차 연기됐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집행위원회를 열어 6월 열린 예정이던 부산 세계선수권을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한국시간) 밝혔다.

부산 세계선수권은 당초 이달 22~29일 열린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6월 21일~28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세계선수권 조직위원회는 부산시, 개최 장소인 벡스코와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ITTF는 다음 주에 세계선수권의 새로운 개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승민 공동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 탓에 대회가 재차 연기됐지만, ITTF가 대회 자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보다 최대 반년 더 운영되는 조직위는 몸집 줄이기에 들어간다. 자체 선발 직원 30여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당분간 대한탁구협회 직원과 부산시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ITTF는 아울러 6월 30일까지 열린 예정이던 모든 주관 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TTF는 앞서 이달 17일 4월까지 열린 예정이던 모든 주관 대회를 취소·연기한 바 있다.

ITTF는 또 3월 랭킹을 마지막으로 순위를 동결하기로 했다. 당분간 세계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가 전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영식(국군체육부대)이 남자 단식 13위, 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여자 단식 16위로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미래의 국수 "나야 나"

하찬석 국수배 영재최강전 8강 대진 확정



문민중 2단

김경은 초단

미래의 '국수'를 꿈꾸는 신예 바둑기사가 기량을 겨루는 제8기 하찬석 국수배 영재최강전 8강 대진이 확정됐다.

한국기원은 30일 하찬석 국수배 8강진 김경은 초단 vs 현유빈 2단, 권효진 초단 vs 김동우 초단, 김선기 2단 vs 오병우 2단, 문민중 2단 vs 김경환 초단 대결로 짜였다고 밝혔다.

하찬석 국수배는 17세(2002년생) 이하 프로기사들만 출전하는 대회다. 17세 이하이더라도 종합기전 우승·준우승자는 제외된다.

그야말로 순수 신예들이 실력을 점검하는 대회다. 2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기사 중 김경은 초단이 유일하게 8강에 올랐다.

김경은 31일 저녁 7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현유빈과 8강 첫 대국을 벌인다.

두 사람은 공식 대회에서 처음 맞붙는다.

김경은 초단이 승리한다면 여자 기사로는 최초로 이 대회 4강에 오르게 된다.

내일 6일에는 권효진 vs 김동우, 7일 김선기 vs 오병우, 8일 문민중 vs 김경환의 8강전이 펼쳐진다. 문민중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하찬석 국수배 4강전은 4월 23~24일 열리며 대망의 결승은 5월 4~6일 3번기로 펼쳐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주디
3관	월드 워 Z, 스타 이즈 본
4관	인버저블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다크 워터스, 1917
7관	씨네커플 1917, 인버저블, 미드나잇 인 파리
8관	씨네커플 정직한 후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